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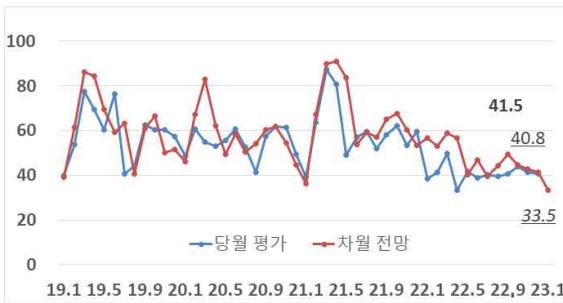
I. 2022년 1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3년 1월 전망

■ 12월의 경기평가는 전월의 수준, 차월은 악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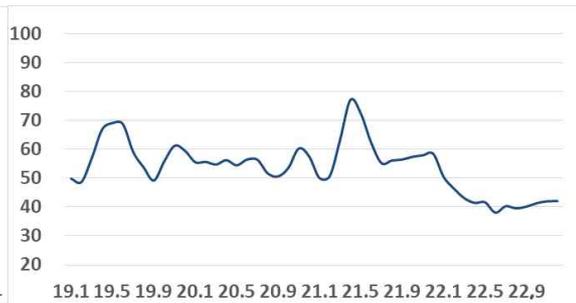
-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0.8로 전월(41.5)과 유사했으나(-0.7p). 차월인 2023년 1월의 전망치(33.5)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조사됨. 응답업체들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으로 인한 공사수익성의 악화를 지적했으며, 일부에서는 중국의 춘절로 인한 자재수급의 곤란함도 지적함.
 - 수도권은 49.1(45.8→49.1)로 개선(+3.3p), 지방은 37.7(39.8→37.7)로 악화됨(-2.1p).

〈표-1〉 2022년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3년 1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2년 12월 평가	40.8	59.5	49.1	37.7	59.4	34.4
2023년 1월 전망	33.5	56.8	39.6	31.2	50.0	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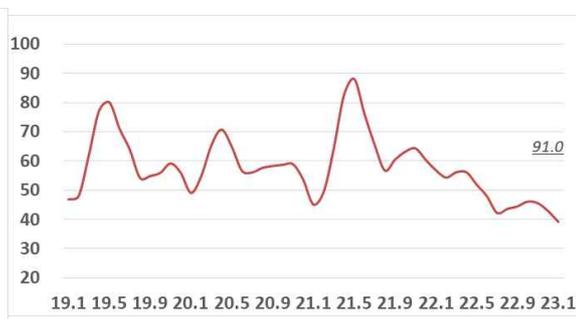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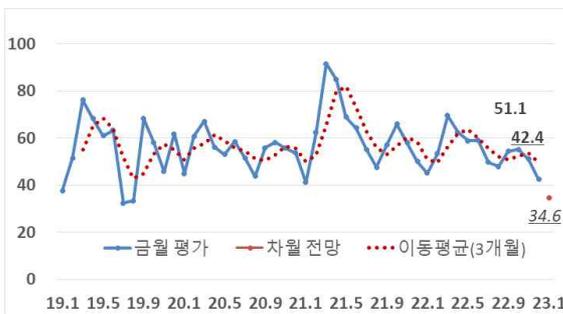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전월에 이어 하락세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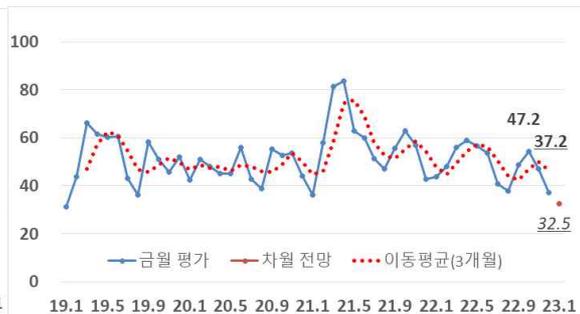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는 42.4(51.1→42.4)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며(-8.7p) 이는 전년 동월보다 낮은 상황임. 하도급수주도 37.2(47.2→37.2)로 전월과의 차이가 현격했으며(-10p) 역시 전년 동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0.0→45.3)은 소폭 하락(-4.7p)한 반면 지방(51.6→41.3)에서의 하락 정도가 큰 것으로 집계됨(-10.3).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2.1→49.1)은 전월과 일부 차이를 나타냈으나(-3p), 지방(45.3→32.6)에서는 크게 악화됨(-12.7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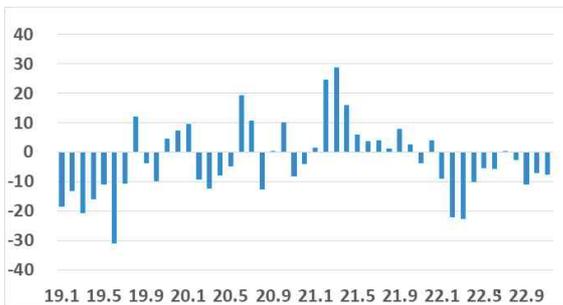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2년 12월 평가	42.4	50.0	45.3	41.3	53.1	39.1
	2023년 1월 전망	34.6	54.8	45.3	30.4	40.6	32.8
하도급 수주	2022년 12월 평가	37.2	42.9	49.1	32.6	43.8	35.9
	2023년 1월 전망	32.5	54.0	39.6	29.7	40.6	28.1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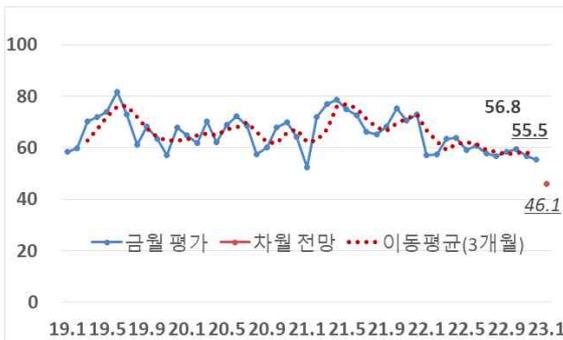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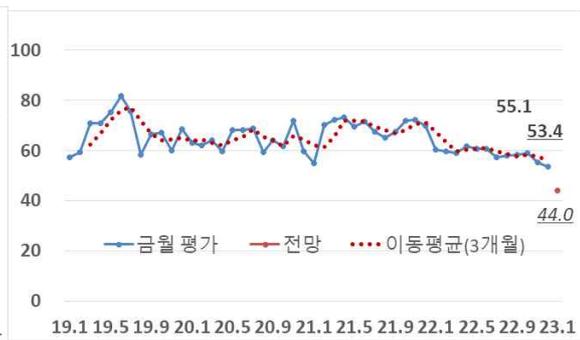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5.5(56.8→55.5)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1.3p), 여전히 전년 동월(73.0)과는 큰 차이를 보임.
 - 수도권(50.0→56.6)은 전월 대비 개선되었으나(+6.6p), 지방(59.4→55.1)에서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냄 (-4.3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도 53.4(55.1→53.4)로 전월의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1.7p), 전년 동월(69.8)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음.
 - 수도권(45.8→54.7)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8.9p), 지방(58.6→52.9)은 반대로 소폭 악화된 것으로 집계됨(-5.7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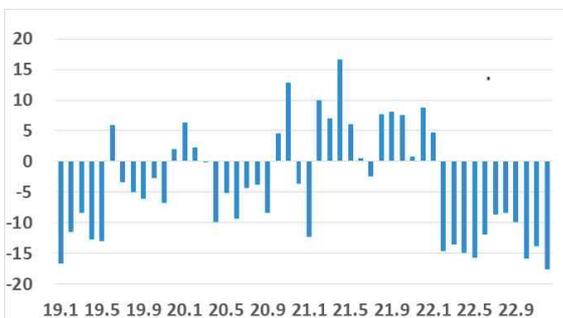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2년 12월 평가	55.5	73.0	56.6	55.1	68.8	62.5
	2023년 1월 전망	46.1	66.7	54.7	42.8	56.3	53.1
자금조달	2022년 12월 평가	53.4	69.8	54.7	52.9	62.5	59.4
	2023년 1월 전망	44.0	64.3	45.3	43.5	46.9	51.6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개선, 기능인력수급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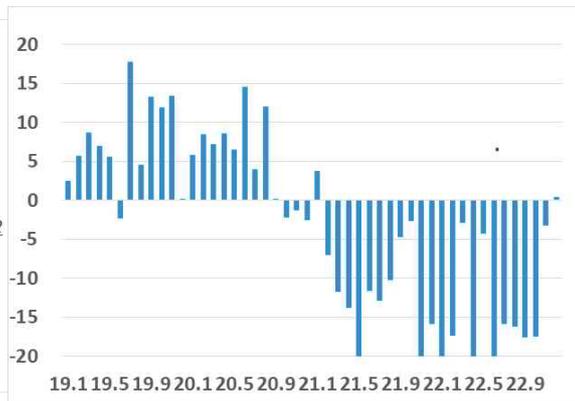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6.0(52.3→56.0)으로 소폭 개선되었으며(+3.7p), 전월과 마찬가지로 전년 동월(55.6)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냄. 다만 인건비의 경우 최근 3개년의 지수변화를 감안한다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2년 초반에 크게 악화되었던 지수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아도 무방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60.4→58.5)은 전월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1.9p), 지방(49.2→55.1)에서는 소폭의 개선을 보였음(+5.9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²⁾는 62.8(59.7→62.8)로 소폭 개선되었지만(+3.1p), 전년 동월(72.2)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음.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업체가 추가적인 작업시간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함.
 - 수도권(50.0→52.8)은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2.8p), 지방(63.3→66.7)은 전월에 이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3.4p).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2년 12월 평가	56.0	55.6	58.5	55.1	65.6	56.3
	2023년 1월 전망	49.2	52.4	49.1	49.3	56.3	46.9
인력수급	2022년 12월 평가	62.8	72.2	52.8	66.7	59.4	65.6
	2023년 1월 전망	63.4	81.7	56.6	65.9	62.5	65.6



〈인건비 체감 (개선·악화정도)〉



〈인건비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2)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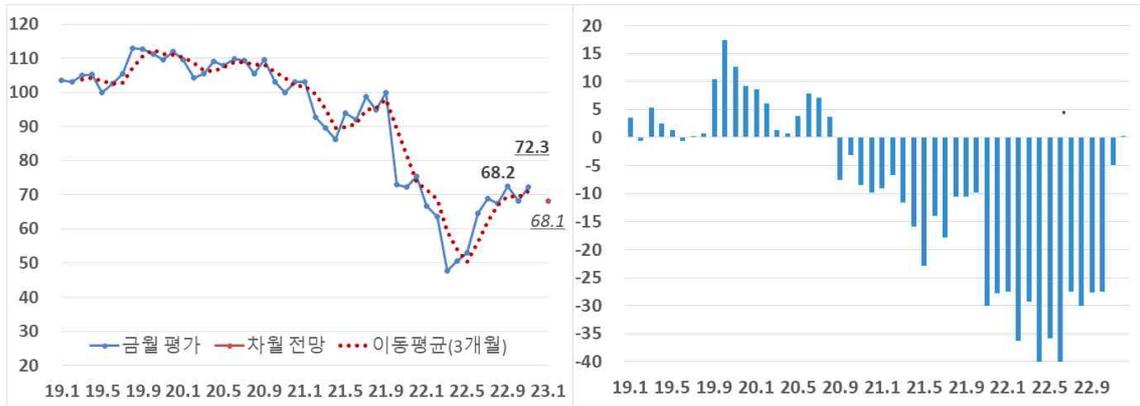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³⁾)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 모두 전월 대비 개선

- 자재비⁴⁾ 경기실사지수⁵⁾는 46.1(40.3→46.1)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5.8p), 차월에도 유사한 수준(45.5)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 동월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철강재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의 자재비 급등이 심각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 수도권(41.7→60.4)은 전월에 비해 큰 폭의 지수상승을 보였던 반면(+18.7p) 지방(39.8→40.6)은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0.8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2.3(68.2→72.3)으로 개선되었으며(+4.1p), 전월에 이어 전년 동월 지수와도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62.5→75.5)은 전월보다 크게 개선된 반면(+13p), 지방(70.3→71.0)은 전월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0.7p).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2년 12월 평가	46.1	31.0	60.4	40.6	68.8	51.6
	2023년 1월 전망	45.5	41.3	58.5	40.6	68.8	46.9
자재수급	2022년 12월 평가	72.3	72.2	75.5	71.0	78.1	71.9
	2023년 1월 전망	68.1	81.0	71.7	66.7	75.0	65.6



〈자재수급〉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3)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게 나타남.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나 종합 건설업체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드물기 때문임.
 4)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5) 동 항목은 '21.1부터 신규로 추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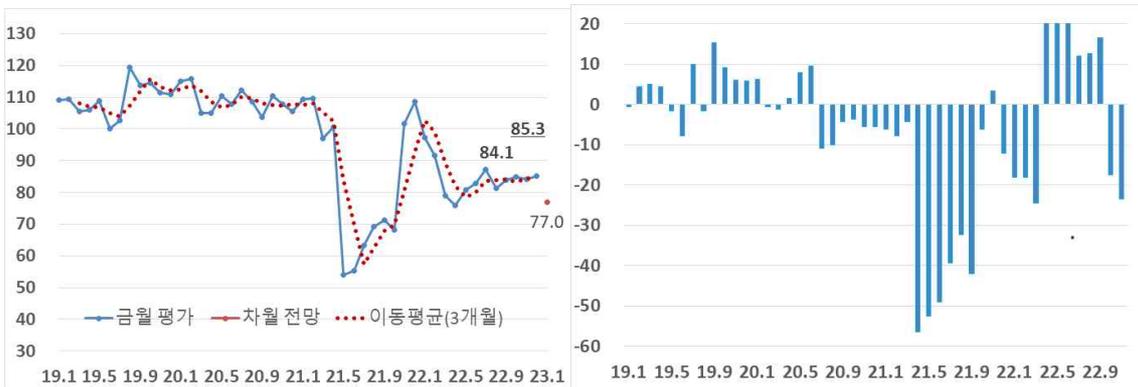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는 소폭 하락, 장비수급지수는 여전히 전월 수준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9.7(62.5→59.7)로 전월보다 소폭 악화되었으며(-2.8p) 차월(55.8)에도 별다른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3.9p). 장비임대료에 대한 체감은 전년 동월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심각함이 더해짐.
 - 수도권(66.7→67.9)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1.2p). 지방(60.9→56.5)은 일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4.4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5.3(84.1→85.3)으로 전월과 유사했으나(+1.2p) 전년 동월과의 차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장비임대료와 달리 장비수급은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여력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동 조사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87.5→86.8)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0.7p), 지방(82.8→84.8)은 소폭 개선되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았음(+2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2년 12월 평가	59.7	69.8	67.9	56.5	71.9	59.4
	2023년 1월 전망	55.5	61.1	67.9	50.7	75.0	56.3
장비수급	2022년 12월 평가	85.3	108.7	86.8	84.8	84.4	90.6
	2023년 1월 전망	77.0	104.0	84.9	73.9	84.4	78.1



〈건설장비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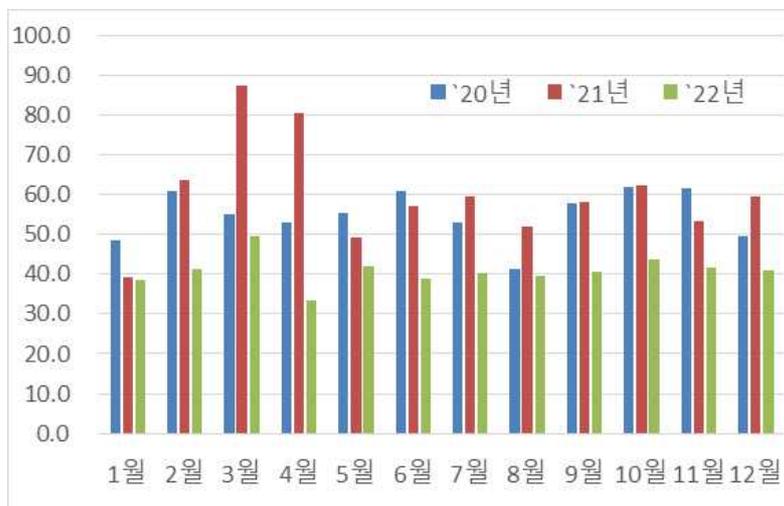
〈건설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2년 1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분		종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0.8	59.5	49.1	37.7	59.4	34.4	
	차월 전망	33.5	56.8	39.6	31.2	50.0	28.1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42.4	50.0	45.3	41.3	53.1	39.1
		차월 전망	34.6	54.8	45.3	30.4	40.6	32.8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37.2	42.9	49.1	32.6	43.8	35.9
		차월 전망	32.5	54.0	39.6	29.7	40.6	28.1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5.5	73.0	56.6	55.1	68.8	62.5
		차월 전망	46.1	66.7	54.7	42.8	56.3	53.1
	자금조달	금월 평가	53.4	69.8	54.7	52.9	62.5	59.4
		차월 전망	44.0	64.3	45.3	43.5	46.9	51.6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6.0	55.6	58.5	55.1	65.6	56.3
		차월 전망	49.2	52.4	49.1	49.3	56.3	46.9
	인력수급	금월 평가	62.8	72.2	52.8	66.7	59.4	65.6
		차월 전망	63.4	81.7	56.6	65.9	62.5	65.6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6.1	31.0	60.4	40.6	68.8	51.6
		차월 전망	45.5	41.3	58.5	40.6	68.8	46.9
	자재수급	금월 평가	72.3	72.2	75.5	71.0	78.1	71.9
		차월 전망	68.1	81.0	71.7	66.7	75.0	65.6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9.7	69.8	67.9	56.5	71.9	59.4
		차월 전망	55.5	61.1	67.9	50.7	75.0	56.3
	장비수급	금월 평가	85.3	108.7	86.8	84.8	84.4	90.6
		차월 전망	77.0	104.0	84.9	73.9	84.4	78.1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